

목어

의약분업과 만족 줄이기

어느날 밥에 쥐가 죽고 있는 닭을 잡아 먹기 위해 햇대 밑으로 나왔다. 쥐는 닭이 눈치채지 못하게 쫓겨다니다가 그 닭이 살뜰 물었다. 깜짝 놀란 닭은 계속처럼 눈을 뜨고 두리번거렸지만 쫓겨다 숨어 버린 쥐를 찾을 수도 없고 아무 것도 보이지 않자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는 사이 쥐는 계속 공지를 물어대 피가 남지 않게 호르도록 하였고, 닭 스스로는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

중생들의 감각기관은 닭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찰할 때 문에 서로 상대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눈으로는 듣지 못하고 귀로는 볼 수 없으며, 보는 것은 눈으로, 듣는 것은 귀로. 감각은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들 감각 기관은 예전과 똑 같은 세기의 자극을 가하면 특별한 느낌을 가지거나 만족할 수가 없어서 갈수록 강한 자극을 만족하게 된다. 닭의 경우는 스스로 원한 자극이 아니었지만 반복되는 자극을 정확히 변별하지 못함으로써 끝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원한은 원치 않던 보다 더 자극을 원하고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닭이 된다는 것을 의약분업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약사, 정부와 국민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를 장악하고 있는 약사들 때문에 위권이 무너졌다고 판단한 의사와 제대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한 정부 그리고 약사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것이지만 단순하게 보면 세 집단의 감각기관 만족 늘리기의 폐해에 다름 아니다.

전국의 의사들이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의견을 쟁취하기 위해 수술실, 응급실까지 철수하고 폐업하는 강경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당황스럽고, 한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하다.

중생들의 세상에 황금분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정부와 의협, 약협 그리고 시민단체가 가슴을 연 상태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면 협력을 못 볼 일이 없을 텐데, 아마도 자기집단 감각의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법현(스님·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선전용 종교행사만 허용 변화 기대 아직 이르다

북한의 종교정책 바뀌나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평양에) 오셨으면 좋겠다. 보고 가서 (통일을 위해)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북한 종교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민 문화관광부장은 지난 16일 문광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종교 분야를 말씀했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국방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종교에 대한 인식 변화의 조짐으로 읽힌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겠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유사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며 주문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의 연장선상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동안 종교를 부정하거나 대의선 전용으로 활용해왔으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때는 80년대 후반, 88년 5월 최초로 모향산 보현사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후 매년 성도절 열반절과 부처님 오신날에 가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있다. 불교교회와 장성성당이 88년, 칠골교회가 89년 건립됐다. 92년에는 헌법을 개정하며 '반종교 선전의 자유' 부분을 삭제했다.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의

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개설했다. (북한 헌법 68조)

현재 평양에는 사찰 8곳, 성당 1곳, 교회 2곳이 있다. 여전히 종교활동은 부자유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종교활동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당의 통제하에 선전용 종교행사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국방위원장의 발언은 <김일성 회고록>과 허정숙 노동당중앙위원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되새기며>에 나타난 종교 관련 언급과 맥이 닿아 있다. <김일성 회고록>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마르크스의 명제를 어떤 경우나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요, 일본에 천발을 내리고 조선민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천불교에다 그대 아편이라는 감투를 합부로 씌울 수 있겠소?" 라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에 따르면, 천불교는 한때 항일독립군

이었던 정두범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것으로, 왜놈들에게는 천발을 내리고 조선민족에게는 복을 내려달라고 백두산 천지에 빌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삼았다.

<김일성 회고록>이나 허정숙 모두 항일투쟁을 고무하거나 '건국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도 '통일'에 기여하는 종교를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박 장관이 전한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으로 북한의 종교정책이 변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당 강령의 개정, 주한미군의 주둔 허용 등이 진정될 경우, 또 천주교 요한 바오로2세 교황의 방북 여부에 따라 종교정책의 변화할 가능성은 볼 수 있다.

조성렬 박사(성공관대 정의과 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을 방문하는 남측 종교인들의 신앙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는 열기 위한 양보의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준 기자(swjung@buddhania.com)



○91년 4월 모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한 스님이 함께 타종을 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종교인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깨달음 지상주의... 일상 삶과 거리감

18간화선 수행의 문제점과 대안(1)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일반인에게 선(禪)은 너무나 멀리 있다.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더욱 멀다. 불교가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선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다가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선이 승려들에게는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열심히 수행하는 승려가 전체의 1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10년이나 20년 이상 꾸준히 참선하는 승려의 비율은 차라리 묻지 않는 편이 낫다. 이 통계는 간화선이 승려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간화선이 이렇게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까닭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얘기하자.

첫째, 선이 일상적 삶으로부터 유리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의 선은 일상과 초월 사이의 긴장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저쪽 언덕으로 너무 치우쳐 버렸다. 말하자면 깨달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은 불교의 최고선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나쁠 게 없다고 하겠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이상만 자꾸 들먹이다보면 자칫 깨달음은 현실감 없는 관념으로만 남기 쉽다. 선이 형식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게다가 일상적 삶의 경시는 그대로 계율에 대한 경시로 이어진다. 계율은 규제가 이전에 불교적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계율이 여법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지혜와 선정 역시 온전할 리 없고 결국 불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계율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는 불교 내적인 장애이자 사회적 입지를 잠식하는 큰 병폐이다.

간화선이 '깨달음 지상주의'로 흐

른 것은 원둔범이라는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 '단박'에 '완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원둔범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크고 작은 깨달음을 여러 번 거친 예가 많으니 실제로 깨달음에 단계와 대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둔범이라는 자기 규정에 취해서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돌고 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정보고 없고 단계도 없이 깨달음과 깨달음 아닌 것만 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은 설 자리가 없다. 대승불교의 가장 원숙한 열매라고 자부하는 선가에서 보살행이 별로 거론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도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둘째, 간화선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선은 '고통스러운' 좌선에서부터 알 듯 모를 듯한 선문답에 이르기까지 범부들이 접근하기에 여간 까다롭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교학)가



서정형 서울대 강사·철학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기대되는 것은 선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밖에 없다. 선은 언설에 의존하지 않는다(不立文字)고들 하지만 선문답 많은 저작을 남기고 있는 종파도 드물다. 선이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효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이다. 문제는 말 자체가 아니라 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중생의 무명인 고로 불립문자라기보다는 불체문자(不體文字)라고 해야 옳다.

선은 "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한다. 선과 얽매어 있어 이보다 더 갈수록 표현한 예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러하다: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알아야 하고,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는 것으로 만

불교TV 기사외생 가능성 있다

새 경영진 15억 출연 악성부채 해결할 듯

과산 위기에 놓인 불교TV가 주식감자와 새 이사 영입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단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기사외생 가능성이 대는 밝은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

불교TV는 20일 총회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추대된 회장 성우석과 이수덕 사장은 함께 이달 말까지 15억 원 정도를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30억원에 달하는 극한 악성 부채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자 물색에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시급한 부채는 24억원 정도의 퇴직자 임금을 비롯해서 하나은행 11억원, 금호전기 9억5천만원 등 45억원 정도다. 이중 퇴직자 임금은 이수덕 사장이 퇴직자들에게 상여금 증액 반을 회사 주식으로 출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만약 상사가 된다면 1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하나는 행은 협할 7억원 상환을 조건으로 4억원을 인하했으며, 금호전기도 보증금을 제외한 8억여원 중 5억원만 갖고 3억원은 광고료로 대체기로 한 상태라 경영진의 책임 마련이 관건이다. 직원들이 22명만 감소된 지난 달 5천여만원의 흑자가 나고 있어 일단 이번 고비만 넘긴다면 경영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수덕 사장은 "이달 말까지 우선 20억원 정도를 마련해 부채를 일부 상환한 뒤 22명의 이사들 출연금 미납자들에게 2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8월 1일부터 뉴스를 비롯해 동양학 강좌, 청소년 태고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말해 경영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주원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동국대학교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본사: 신촌역사거리길 10 (본지는 신촌역사거리길 10) 및 그 일선 요양을 준수한다
 인쇄인: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갈월사 영탑(靈塔)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탐궁원 설립의 의의

돌이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에 평안히 영생케 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영탑▶

참다운 토대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댁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탐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탐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 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판단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탐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탐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 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 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38)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alsa.bz.co.kr

◀ 방문 ▶

· 모시고 싶은곳, 자주 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건강하고 영속한 인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